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사-

창세기 4:1-12, 유다서 1:3-4

정윤돈 목사님

기독교의 역사는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영적 싸움이었다. 신약시대 초기에는 100년이 넘도록 정경(正經)이 없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단행본의 복사본들이 유럽으로 퍼져갔던 것이다. 그 중에 마르시온(Marcion)이라는 돈도 있고 약간의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틀린 믿음이었다. 이 사람이 구약 부터 읽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약을 성경에서 빼 버렸다. 신약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을 빼 버렸다. 이해는 된다. 여러분은 어떤가.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 기준,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정말 옳은 것도 아닌 자기 입장에서 정의와 윤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다.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겠는가.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춘다. 인간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자매들이 너무 착하고 예쁘다.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가? 할 필요가 없다. 황급사님은 진짜 하는 줄 알고 짹짹 놀라시는 것 같은데. (웃음) 아무리 못 박아도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 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한 가지 죄조차도 허용하실 수 없다. 와이셔츠에 잉크 자국 하나만 있어도 그 옷을 입고는 중요한 장소에 갈 수가 없지 않다. 나무도 거룩한 하늘나라에는 조그마한 죄 하나만 있어도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씻고 해결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 내용을 여호와의 증인은 수용도 하지 않고 이해도 못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 기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해될 날이 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면 된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두고 적고 기다렸다. 어느 날 이해될 때가 온다.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적어 보라.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라. 그러면서 기다려라. 어느 날 완전히 깨닫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뿐, 성경은 틀리지 않으며 한계도 없다. 나는 오랫동안 해답을 기다렸던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어떻게 이답과 하와에게서 세 가지 인종이 나뉘질 수 있는지는 말이다. 핑퐁이 궁금했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창조과학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깨닫게 되었다. 모든 종류의 유전자 가 한 사람 안에 다 있었고, 그것이 각 후손들에게 특이한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면 이해되는 날이 온다. 과학적, 이성적, 윤리적, 도덕적인 것까지 다 이해되는 날이 온다. 그 때까지 믿으면 된다.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과 기준, 자기의 판단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성령이시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 복음, 완전 신앙, 완전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유다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서론 : 유다서의 특징

마르시온이나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혼란을 성도들이 겪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경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약 27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런데 몇 가지의 말씀은 나중에 루터까지도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다서다. 외경(外經) 속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유다서를 보면서, 이 책이 성경으로 들어온 것이 너무 잘 된 것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이 짧은 내용 하나에 신학교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너무 소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론적으로, 유다와 유다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①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요7:5).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을까? 천주교에서는 안 낳았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7:5에 보면,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4장 때부터 형제간의 문제가 나온다. 장남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동생들이 보니까 마음에 인정이 되지 않고, 기분이 괜히 나쁜 것이다. 그러나 유다가 어떻게 말하는가? 유다서 1:1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야,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야구나. 나는 저분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② 이어서 말씀한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왜 예수님의 형제라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가? 당시에 야고보가 전체 그리스도인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동명이인이 많았으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구분하게 하면서, 편지에 대한 신뢰도,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증을 자기 형제인 야고보를 통해서 담보하게 된 것이다.

③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천주교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지 않은 채 평생 동정모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전통에 빠져 있다.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으로써까지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천주교는 이것을 전통이라면서 지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6:3을 보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딸들까지 있었다는 말이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친척이라고 견강부회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한다. 고집을 피우지 말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을 길을 걸어가야 한다.

(2) 유다서가 다른 신약의 책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구약시대의 외경(外經)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다서 1:9에,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는 장면은 구약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외경에 있는 내용이다. 유다서 1:14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예언했다고 했다. 에녹서라는 책을 인용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믿는 자가 있었던 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분해하고 뜯어고치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 일부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유다가 일부러 그들이 믿는 책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야, 봐라, 너희 영지주의자들이 쓰는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신약 27권이 정경화가 되지 않은 때였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나서 마르시온 때문에 정경화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구약성경 뒤에 외경을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천주교에서 썼던 성경인 불가타(Vulgata) 라틴어 성경은 70인 역(譯)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이다(70인 역 : BC 3세기 중엽,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여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그런데 그 70인 역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AD 70년 경 정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암니아 회의'라고 불리는 회의를 가졌다. 이들이 구약 원본을 조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무엇인가를 두고, 원문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확정된 것이 구약 39권이다.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원 텍스트인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본문을 기준으로 구약성경을 정했다. 그래서 외경을 배제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가 사역하던 당시에만 해도, 정경과 외경, 위경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자인 유다가 이단들에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외경은 성경 밖의 내용이고, 위경은 틀린 내용, 거짓된 내용이다. 외경은 성경 속에 부록도 포함되기도 했지만, 위경은 틀린 문서, 금서가 되어 버렸다. 기독교가 공인이 된 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신인성에 대한 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확정되는 데에만 126년이 걸렸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쉽게 믿지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웠던 것이다(유1:3).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1.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싸움의 대상

구체적으로 유다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하고 경고했겠는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나누고자 한다.

(1) 유다서 1:4에, '기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했다. 신천지 집단도 그렇지 않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대 그랬다. 많았는데, 아니면 몇 사람이었는가? 소수였다. 그런데 그 영향이 나중에 핑퐁이 커지고 피해가 막심해졌다. 그래서 경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1:4에,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방랑한 것으로 바꾸었다. 당시 우상 종교들은 다 음란한 종교였다. 신전에 가면 창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란을 행했다. 지금은 교회 오는 분들이 교회 밖 로비에서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들어오지는 않지 않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네, 육신도 거룩해져야 하고, 마음과 생각도 영혼도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술담배를 하는 분들도 교회에서는 안 해야 하는 줄은 알고 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교회에 오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하고 십일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안 온다. (웃음) 교회를 막 비판한다. 술 담배 계속 하고 싶고 십일조도 안 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욕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영은 알고 있다.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 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회 욕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다 그런 영적 상태 때문이었다. 지금은 확립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타락의 풍습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자들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해동까지 그들이 들어와서 했던 것이다.

(2) 유다서 1:5에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1:5를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짜증을 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믿으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저것 때문에 싸우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3) 유다서 1:6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처럼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사탄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묶

안에 가두셨으며.” 사단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안 하고 떠나 버린다. 교사도 안 하고 찬양대도 안 하고 떠나 버리는 그 모든 것이 교만 때문이었다. 평계, 이유를 대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어진 위치를 지키시기 바란다.

(4) 유다서 1:7에,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율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로 충만한 상태로 갔을 때, 그것이 오래되어서 네피림 체질까지 되어버린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복음만이 그 체질을 바꿀 수 있다. 동성애의 이유와 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짓인가. 동성애자만 남으면 가문은 대가 끊기고 인류는 결국 멸종할 것 아닌가?

(5) 유다서 1:8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꿈을 가지고 말했다. 여러분, ‘제가 꿈을 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는 말은 하지 마라. “성경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더라’ 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인간이다. 그럴 거라면 자기 멋대로 해야 한다. 그것은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하냐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정말 흑암을 쫓는 길은, 내가 다 옳고 다 안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인도받는 사람이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따세요.’ 이것은 명령인지 협박인지.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꿔는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중에 요셉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요셉이 꿈 그런 꿈은 안 주실 것이다. (웃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혹시 램프 중에 요셉보다 훌륭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풀어지는 사람은 조용히 마음에 담아라. 괜히 나불대다가 요셉처럼 팔려가지 말고 (웃음)

(6) 유다서 1:9에 보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마귀론, 귀신론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 반딧 사단이 물러가라, 귀신이 물러가라, 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하는 식으로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창세기 3장의 원리를 잘 설명해서 이해되도록 해야 하지, 귀신론에 빠지면 안 된다. 내가 옛날에 귀신론자들 집회를 가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귀신이 물러가라!” 하더니, 사람들이 타닥닥 넘어지더라. 나는 안 넘어졌는데. (웃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특별한 현장에 가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마귀를 쫓는 길은 겸손해지는 것이다. 목사님이 순종하는 것이다. 마귀는 이때 벌벌 떤다. 남편을 보고 다 마귀의 역사다 하면 남편이 기분이 좋겠는가. 교회에 오고 싶겠는가.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서 무당 같은 짓을 한다. 푸닥거리를 하면서 귀신이 나가라 하는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아닌가.

(7) 유다서 1:10에 보면, 성경과 믿음과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으면서 비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다. 목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것이다. 아니, 그 목사가 잘못된 인간이지, 예수님이 잘 못되었는가. 예수님은 그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나까, 믿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개혁하고 있다. 그게 맞지 않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비방하고, 진화론도 잘 모르면서 주장하고, 정확한 상황과 배경도 모르면서 자기 입장과 기준에서 비방한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다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그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 사정과 상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면 옳하게 된다.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윤리로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상 없는 짐승 같이 분능으로 행하는 그것으로 멸망해 버리게 된다.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원한다.

(8) 유다서 1:11에 보면,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나온다. 가인의 길이 무엇인가? 예배를 실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피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미워하며,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진다. 뻔뻔한 모습 아닌가. 빌람의 길은 무엇인가? 돈 중심, 이익 중심이다. 고리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결국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삼켜진 고리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다.

(9) 유다서 1:12-19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유다는 아주 분에 섞인 말로,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저주하고 있다. 유다서 1:12에, “그들은 기단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얽호요.” 성찬예식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자리, 위치, 이익이라는 생각이 팍팍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예식이 오히려 얽호가 되어 버렸다. 거짓 행하는 것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비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몸만 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인 것이다. 1:16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19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다.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킨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성령충만 받으시기를 바란다.

2. 우리가 힘써 막고 싸워야 할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힘써 막고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1)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다. 이슬람이다. 우상 종교들이다. 뉴 에이지, 일루미나티, 유대인들이다. 특히 요즘은 킹제임스버전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말씀보존학회라고 한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이 참 좋은 성경이다, 하나님이 참 좋게 보존하셨다 하는 정도라면 말하면 되는데, 기존의 개역개정 성경은 사단이 역사한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1611년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불가타역을 비롯한 소수의 몇 개 사본을 가지고, 왕을 위해서 번역을 한 것이다. 신앙적으로는 썼어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다. 그 후로도 많은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신구약 성경 사본들이 새롭게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발견된 새로운 사본들이 10개라고 할 때, 9개에는 그 구절이 없고 1개에만 있다면, 그 구절을 (없음)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구절의 내용이 있다고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없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1600년대에 번역한 영어 성경이고, 그것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한(重譯) 것이니, 원문과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 성경이 좋은 성경이다 하는 것까지도 좋다. 그러나 기존의 개역개정 성경은 사단이 역사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우기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2)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다.

(3)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화되지 않는 것이다. 체질이 안 바뀌는 것이다. 21가지 삶, 8미션, 로마서 16장의 당연히 되어져야 할 삶이 안 되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언약을 붙잡고, 원래의 신앙,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결론 :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방법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단도 많고 타락한 사람도 많고 인격적으로나 인간관계 면에서 부족하고 언약한 성도도 많은 이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과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천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하겠는가? 유다서 후반부에는 짧지만 명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1) 그 첫 번째 방법이 유다서 1:20-21이다.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거룩한 믿음이다. 영지주의자는 타락했다. 여러분은 육체도 거룩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항상 더럽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고, 정시기도하고, 그때 그때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세수하고 머리 감고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도 교회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로만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지 말고 정말 사랑을 보이고 용서를 보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무엇인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의 간증, 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도가 되어진다.

(2) 두 번째로, 유다서 1:22에,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겨라.” 이단도 여호와의 증인도 신천지도 말씀보존학회도 우리는 공홀히 여겨야 한다. 조금 부족한 사람도 공홀히 여겨야 한다. 왜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돌아오면 더 좋은 신자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3) 세 번째로, 유다서 1:23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단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지옥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램프들 중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 사역을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한다. 누가 하겠는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뿌리를 정확하게 내야 한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4) 네 번째로, 유다서 1:23 후반절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홀히 여기라.” 동성애자, 신천지, 거기 있는 것들은 옷까지도 더럽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공홀히 여겨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사단의 길, 잘못된 길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 어려운 사명을 언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 1:24-25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몇 가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 이 응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란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②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이단이든, 동성애자든, 중독자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거침없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셋째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과 심판대 앞에 흠 없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짧지만 이 유다서를 정리하고, 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분명히 복음 가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목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취할 여정을 걸어가는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영혼까지도 거두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